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시온의 영광

(시편 87:1-7)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이제 시온은 열방들이 침략해야 할 대상이나 점령해야 할 적지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저들의 근원이요 귀의해야 할 어머니인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세계시민(A Citizen of the World)이라 불렀습니다. 스토의 학파 철학자들은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를 꿈꾸었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세계 연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연합은 이상처럼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는 많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복함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신앙의 나라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평화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시편 87편은 이 같은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와 같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의 시민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합니다.

시편 87편은 86편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시 86:9). 이것은 예언이었고, 이 예언은 87편에서 완전하게 발전되었습니다.

### 1. 영광의 도성

시온성이 모든 도성 중에 영광스럽게 된 이유를 시인은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①시온은 성산에 터를 잡고 있는 도성이다.

시온성은 지상의 성이라기보다 하늘의 성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위대한 성도들은 지상의 예루살렘보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고 즐거워했습니다.

②시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이다.

시온은 주님께서 기지를 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곧 시온의 영광입니다.

③시온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도성이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 이상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3절)라고 크게 외칩니다.

### 2. 만민의 도성

시인은 본 시에서 구약에서는 듣기 어려운 중대한 메시지, 곧 시온이 세계 만민의 모도(母都)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열거된 몇 나라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는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 멀리 또는 가까이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 후 오순절이 오기까지 생각할 수 없는 일

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비전이 신약 여러 곳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가리킨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세계 교회 형성의 예고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만민의 하나님, 열국의 모도, 세계교회는 벽찬 꿈이며 감격적인 은총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메시아 강림으로 실현될 일이지만 이는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들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4절)에서 안다는 말 그대로 안다는 뜻 외에 지식, 이해하다, 확신하다, 경험하다와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를 더 잘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백성들은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4, 5, 6절). 세계 모든 백성이 한 날에 예루살렘에서 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참 시민의 위상이 주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87편의 비전은 교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서 낳은 것은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70인역 성경에서는 ‘시온은 모든 백성을 낳은 어머니로 불리울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갈 4:26)는 말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3. 시온의 노래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7절).

시온의 백성이 된 만민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시온은 열방들이 침략해야 할 대상이나 점령해야 할 적지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저들의 근원이요 귀의해야 할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 곧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므로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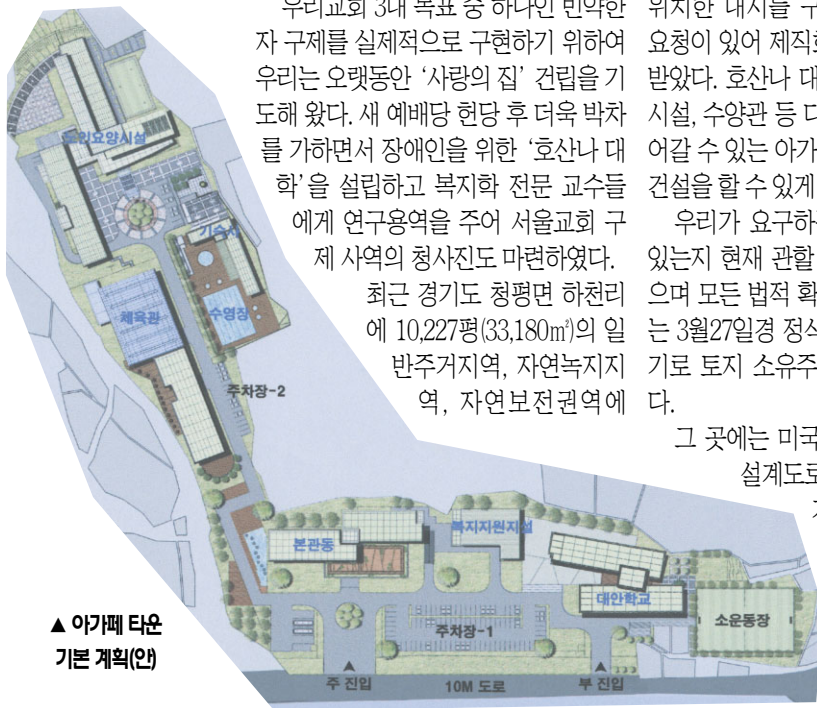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아가페 타운 건설 초읽기

## -경기도 가평군 청평에 10,227 평-



▲ 아가페 타운 기본 계획(인)

우리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랫동안 '사랑의 집' 건립을 기도해 왔다. 새 예배당 헌당 후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호산나 대학'을 설립하고 복지학 전문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주어 서울교회 구제 사역의 청사진도 마련하였다.

최근 경기도 청평면 하천리에 10,227평(33,180m<sup>2</sup>)의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대지를 구입하기로 한 당회의 요청이 있어 제직회가 만장일치로 이를 받았다. 호산나 대학,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수양관 등 다목적 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아가페 타운(Agape Town) 건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현재 관할 당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모든 법적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오는 3월27일경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토지 소유주와 약속을 한 상태이다.

그 곳에는 미국의 홀리데이 인 호텔 설계도로 건축한 본관 건물과 기숙사동, 작업장 등의 건물이 있어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축을 하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무지개 어린이합창단 원서 접수

## -3월17일(월)부터 사무국에서-

우리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산하에 창단되는 서울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Rainbow Children's choir) 원서 접수가 3월17일(월)부터 시작된다.

합창단원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까지며 원서접수는 3월17일(월)부터 3월21일(금)까지 사무국에서 받는다. 모집인원은 30~40명이며 3월28일(금) 오후5시부터 공개 선발한다. 무지개 합창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어린이 합창단이 되어 국내외 연주회를 갖게 되며 단장 오정수 장로, 감독 이영조 집사(서울교회 음악감독), 지휘 강영모 선생님(사진)이 맡는다. 자문위원으로 나영수 교수(국립합창단 지휘자) 김명업 교수(연세대 교수, 전 국립합창단 지휘자), 원학연 교수(서울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지휘



지휘자: 강영모선생

자), 박신화 교수(안산시립 합창단 지휘자, 이대교수) 등이 맡고 이들이 객원 지휘자로도 초청된다.

지휘자 강영모 선생은 연세대 및 동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인천시립 영코랄'을 18년간 지휘하여 각종 대회에서 대통령상, 대상, 금메달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분을 도울 부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으로 조직된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 북을화를 위한 로잔대회에 이미 초청을 받고 있다.

# 3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 박차

## -교계신문 광고 및 브로슈어 발송-

오는 3월31일(월) 오후 2시에 개강하는 3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교회갱신연구원 봉사위원들은 지난 3월5일(수)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난 후 104호 응접실에 모여 교회갱신연구원 등록회원들과 그 외 교역자들에게 발송할 브로슈어 6,200여 통을 우편발송 하였으며 교회는 각 교계신문에 이번 세미나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번 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도 전국에서 모여든



많은 교역자들로 강의실이 가득 채워져 교회갱신과 부흥을 위한 귀한 시간으로 준비되도록 기도한다.

# 집사·권사 선거

## 5월18일(주) 공동의회 소집

우리 교회는 2008년 5월 18일(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집사·권사 선거를 실시한다. 집사·권사는 교회가 정한 선출기준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특히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5조 4항에 따라 '정규예배 출석하는 자' 중에서 당회가 심사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여기에서 정규예배란 주일예배, 주일찬양예배, 수요일예배를 의미한다.

#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계속 접수 중 -사무국에서

2008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지난주 일제히 개강하였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전도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열린프로그램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등록을 기다린다. 오늘은 20기 찬양대양성반이 오후1시30분 601호에서 7주 과정으로, 교구일꾼양성반(607회)과 교사양성반(609회)이 오후 3시20분에 각각 개강한다.

# 8기 인도 단기선교단 지원자 접수 중

## - 사무국으로 -

8월4일(월) 인도로 파송되는 8기 단기선교단(단장 이영기 장로)에 지원하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단기선교단은 8월 4일(월)부터 13일(수)까지 9박 10일간 인도 푸네 등지에서 현지 선교사와 연계하여 선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예상비용은 약 200만원(항공료, 숙박, 선교비용 등)이며, 전액 자비량이다. 인도 단기선교단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에 신청하기 바란다.

# 금주의 성구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미가 4:3)

He will judge between many peoples and will settle disputes for strong nations far and wide. They wi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will not take up sword against nation, nor will they train for war anymore.

(Micah 4:3-4 [NIV])

청년1부 - 사랑의 헌혈 준비하며

# 십자가 사랑의 첫걸음

김지홍 성도(청년 1부 총무)

청년 1부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랑의 헌혈 행사를 합니다. 헌혈은 다음 주일(3월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 헌혈버스에서 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서울교회 청년들이 헌혈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도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혈액이 필요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헌혈은 성도들이 가장 쉽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2005년 - 사랑의 헌혈

입니다.

본인의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도 전하는 복된 기회가 되는 사랑의 헌혈에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헌혈이 건강관리(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헌혈을 하신 분은 헌혈증서를 받게 되며, 헌혈증서가 있는 분은 만약의 경우 무상으로 수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헌혈증서는 제 3자에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16세 이상 65세미만의 성도 중 만성질환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보유한 분은 헌혈에 참여할 수 없으며 헌혈은 실명제를 원칙으로 함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원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순절의 묵상

#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박윤혜 권사(7교구)

봄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시작됩니다.

긴 겨울의 침묵을 깨고 만물이 약동하며 그 생명력을 회복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을 간절히 바라고 더욱 절제, 회개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는 2008학년도 주제표어를 "주께 하듯 제자를 섬기는 학원"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감명과 도전을 준 이 표어를 붙들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도를 가르쳐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주님 대하듯 한다면, 주변 이웃들을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반목과 성냄이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온 세상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 이웃을 주님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는"(마 11:21)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 영광을 돌립니다.

문화의 기독교화

#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이영조 집사(음악감독)

예배의식과 관련하여서 기독교에서는 음악이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이 특이하다. 곧 찬양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찬양이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 중 많은 기도 인도자들이 하나님께 입술로 그렇게 고한다. 중세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찬양을 담당하는 이들을 교회의 큰 자산으로 소중히 여기고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가진 음악인들을 찾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음악, 그 찬양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 중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경외로움을 잃었다는 것이다.

예배에 입하는 자세, 태도, 복장이 그렇고 경거망동 함이 사람들 사이에 갖추어야 할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내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우리들 자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꾸중 받을 부분이다.

우리는 더 훌륭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범 세계적 기독교 문화권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이성적이고 진실하고 슬기롭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더 좋은 찬양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우리교회는 이를 위해 다른 어느 교회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찬양대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주중 연습으로 최고의 찬양을 지향하고 있다.

작년에 신설된 저녁 찬양 예배의 음악 순서도 찬양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교회의 큰 노력이다. 아직은 외부 인사에 의존하는 등 초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미흡한 점도 있지만 좀 더 발전 되어 높은 예술성을 발현 할 수 있는 우리교회 내의 여러 식구들이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도 있어야 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께 걸 맞는 최고의 예술로서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



첼리스트 정명화 교수와 메조 소프라노 김정희 집사

스데반회 연합수련회

# Helper로서 Leader

김재근 집사(제1 스데반회 부회장)



제 1, 2 스데반회는 2월 29일 - 3월 1일 (1박 2일) 일정으로 옹인의 숙명여대 연수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연합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매년 갖는 수련회이나 올해는 1, 2회로 나뉘어져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행까지 진정한 연합이 필요하였습니다. 새로운 힘과 영적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29일 저녁 'Helper(헬퍼)로서 Leader(리더)' 라는 제목으로 이종운 목사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강 내용을 이 지면에 다 옮겨놓고 싶을 정도로 참다운 Helper로서의 자세에 대한 유익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 1) 선한 청지기 같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 2)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 3)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4)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5) Helper로서 사랑하라.  
Leader를 온전케 하라. Leader를 Leader 되게 하는 Helper, 그 Helper가 Leader이다. 라고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예배와 성준경 장로님의 '이 때를 위함' 이라는 제목으로 스데반 회는 앞으로 서울 교회에 큰 일꾼들로서 맡은 일들을 책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잘 감당하되 '예'와 '아니오'를 해야 할 때에 분명히 하는 일꾼이 되라시며 신앙의 선배로서의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하였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세움을 받은 우리 스데반회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나를 비우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필요한 Helper, 겸손한 Helper, 온전한 Helper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특별 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소프라노 권성순 선생의 독창으로 이루어진다. 연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미성의 권성순 선생은 오라토리오 메시아, 엘리아, 오페라 Sontag Hotel 등에 주역으로 수석 회 출연하였으며 현재 상명대, 명지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우리교회 김복희 집사가 맡는다. 오늘 하나님과 성도들께 들려드릴 곡은 '왜 날 사랑하나' (Robert Harkness), 'Amazing Grace', 'Alleluiah' (W. A. Mozart) 등 3곡이다.

## 2008 성경암송대회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예선을 10월 19일(주)에 본선을 10월 24일(금)에 갖는다. **암송범위는 베드로 전서 1-5장 전장이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1일(화) 신임 군종목사 수련회 개회설교 및 특강을 한다.

■ 이갑진 장로(12교구)는 지난 3월2일 캄보디아 군부대 영어 캠프, 부대 축구팀 창단 등 공로로 캄보디아 국가재건 공로 훈장을 이재울 선교사와 함께 받았다.

■ 이사: 박종식 성도, 최순례 성도 가정(12교구), 오산시 원동 운암주공@ 503-906 T.010-3655--9436

■ 특녀: 12교구 김대옥, 변지혜 성도

■ 주간식당 봉사: 도르가 전도회(3.9) 루디아 전도회(3.16)

■ 금주의 식사: 오희상 집사 김명옥 권사 양춘경 집사 이인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지난 주간 서울교회 사역들

우리교회는 3월3일(월)호산나 학교 신입생 입학식을 갖고 3월5일(수) 해군사관학교 62기 졸업감사 파송 예배를 주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 호산나학교 신입생과 함께



◀ 애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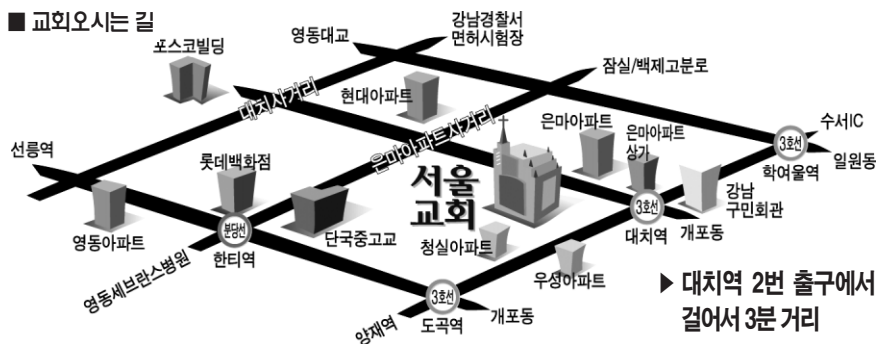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2. 사랑의 집 터를 속히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3. 서울성경대학, 33학기 목회자세미나, 16차 KIMCHI세미나, 각종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4.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5.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